

CNPC, 에틸렌 100만톤 크래커 착공

2008년 완공 예정으로 Dushanzi에 건설 ... 올레핀 프로젝트도 시동

중국 CNPC(China National Petroleum)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있다.

9월에는 자회사 Dushanzi Petrochemical의 정유 및 석유화학 콤플렉스가 착공됐다.

Dushanzi Petrochemical이 Dushanzi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에틸렌(Ethylene) 100만톤 크래커를 기반으로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유설비는 2007년 완공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투자액은 262억위안(32억달러)에 달하며 Dushanzi Petrochemical의 현 에틸렌 생산능력은 22만톤, 매출은 140억위안에 이르고 있다.

CNPC는 자회사 PetroChina를 통해 Dalian, Fushun, Lanzhou 소재 올레핀(Olefin)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에틸렌 및 폴리머(Polymer)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5년 상반기 CNPC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2% 증가한 94만톤, 폴리머 생산능력은 1% 증가한 130만톤에 달하며 자회사 Jilin Chemical Industrial은 최근 Jilin 소재 MIBK(Methyl Isobutyl Ketone) 1만5000톤 플랜트를 완공했다.

한편, CNPC는 최근 42억달러에 인수했던 PetroKazakhstan의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을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KazMunaiGaz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5/10/10>